

한국농어촌공사 거창·함양지사,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

윤 양성범기자 | 승인 2026.05.20 17:41 | 10면

매산저수지·진목저수지에서 공사 직원·유관기관 등 40여명 참여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거창·함양지사는 지난 19일 관할 매산저수지 및 진목저수지에서 공사 직원 및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'2026년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'을 실시했다. /한국농어촌공사 거창·함양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거창·함양지사(지사장 박영진)는 지난 19일 관할 매산저수지 및 진목저수지에서 공사 직원 및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'2026년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'을 실시했다.

이날 훈련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위험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으로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.

재난단계를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각 상황 단계별로 위험 상황 공유, 주민 대피 및 교통 통제, 파손 저수지 응급복구 및 부상자 후송, 경보 해제 후 상·

하류부 점검 및 후속조치 순으로 진행됐다.

박영진 거창·함양지사장은 “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 등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,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농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밝혔다. 양성범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양성범기자